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니혼생명, 2013년까지 자기자본 7조원 확충

□ 일본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FY2013까지 약 6천억엔(한화 7조 3천억원 규모)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.

- 니혼생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던 자본을 확충하고, 기업인수와 중국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3천억엔, 보험료수익 및 기타 예비비로 3천억엔 등 약 6천억엔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함.
- 금융위기 이후 추가급락으로 약 6천억엔의 손실처리준비금이 급감하는 등 자기자본이 대폭 축소되었던 니혼생명의 이번 계획이 성공할 경우, 업계는 자기자본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약 3조 3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.

□ 니혼생명은 확충된 자금으로 적극적인 기업인수와 중국시장 진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함.

- 확충된 자기자본 중에서 기업 인수합병(M&A)과 해외시장 진출 자금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3% 증액된 1조 5천억엔을 확보하기로 함.
- 특히, 해외시장 중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에 전력하기 위해 수도 베이징 등 5개 지역에 지점을 신설하는 한편, 중국농업은행과 제후해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등 중국에서의 보험료 수익을 FY2012에는 현재보다 5.5배 늘어난 145억엔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힘.*

* 2010. 2. 1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'니혼생명, 중국 방카슈랑스시장 진출' 편 참조

- 업계 2위인 다이이치생명도 4월 주식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니혼생명과 같은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두 대형사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
(마이니치신문, 3/25)